

한국 전자산업의 구심체 「전자회관」 건립 착공

전자산업 관련단체 집적화로 시너지 효과 기대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전자산업진흥회(회장 윤종용)는 4월 27일(수) 오후 3시, 서울시 상암동 DMC단지 내에 전자회관(DIC : Digital Innovation Center) 건립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신축 공사를 개시하였다. 2007년 4월 준공 예정인 전자회관(DIC)은 지하 5층, 지상 12층의 최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으로서 연면적 6천평 규모에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총 36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준공 후에는 IT업체와 벤처업체, R&D기관, 각종 협회 등이 입주할 예정이며, 특히 산업자원부의 지원으로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수신기 개발지원센터」도 입주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굴지의 전자업체 400여개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전자산업진흥회는 금번 전자회관 건립을 계기로 전자산업 관련 단체를 한곳에 집적화시키고 공동인프라를 구축해 비용절감과 시너지 효과를 제고함으



로써 한국전자산업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공식에는 본회 윤종용회장을 비롯하여 산업자원부 조환익차관, LS전선 구자홍회장, 대덕전자 김정식회장 등 전자업계 CEO와 한국씨티은행 하영구 은행장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하여 시삽식을 가졌으며, 윤종용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자산업 중심단체로서 전자산업진흥회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전자회관」 건립 개요

1. 건립목적

- 전자산업 관련단체의 집적화 및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 업계 공동 인프라 구축을 통한 비용절감 및 Synergy 제고
- 한국 전자산업의 구심점 역할 수행

2. 추진경과

- '03. 4 : 건립부지 확보(서울 상암동 DMC단지내 B6-3)
- '04.11 : 시공사 선정 및 설계착수(풍림산업/삼우설계)
- '05. 3 : 건축허가

3. 건립규모

- 규모 : 지상12층/지하5층(연면적 6,042평)
- 주용도 : 업무시설(벤처집적시설)

4. 개발 Concept

- 24시간 운영 Digital Office Tower
- 고품격 맞춤형 Section Office

5. 입주대상

- 전자관련 기관 및 단체(KEA, KETI, 연구조합, 협회 등)
- 전자업체(벤처/부품/IT)

6. 공사일정

- 착공 : 2005. 4
- 준공 및 입주 : 2007.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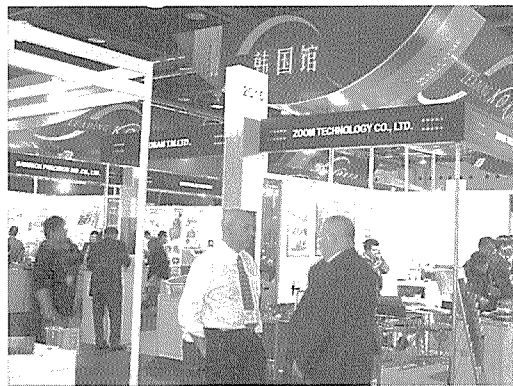
한국 전자부품 제조·검사장비 업체 “Nepcon China 2005”에서 바이어 관심 집중 및 큰 성과 거둬

한국전자산업진흥회(회장 윤종용)는 지난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중국 상하이 에버브라이트 전시장에서 열린 제15회 『중국 전자부품 및 생산기자재전(Nepcon China 2005)』에 전자부품 제조 및 검사장비 관련 15개사 22부스 규모의 한국공동관을 구성하여 참가하여 총상당실적 4,300만달러, 계약액 500만달러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발표 하였다.

Nepcon China 2005 전시주최측에 의하면 금년전시회에는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17개국에서 500여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4일간의 전시기간 동안 약 1만 5천명의 바이어를 포함하여 6만여명의 관람객이 전시장을 방문하여 활발한 상담과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관은 영국, 독일, 싱가포르, 대만 등이 참가하였으며, 한국관은 국가관들이 위치한 서관 2층 중심에 자리 잡았으며, 다른 국가관 보다 전체적인 규모와 참가업체의 전시준비에 있어서 실제 장비를 대거 전시하는 등 전시의 질과 양에서 앞섰으며, 원통형 대형 배너를 공중에 배치하여 멀리서도 한국관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시기간 내내 국가관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참가업체들의 부스는 많은 바이어의 방문으로 연일 바빴었다.

한국공동관은 반도체, PCB, 일반 부품 등의 제조 및 검



사 장비, 정밀 에칭 제품, 클린룸용 방진복, 정전기 방지용 크리너 등 다양한 제품들로 구성되었는데, 한얼의 표면실장검사기, 미르기술의 광학검사기 및 X-Ray 검사기, 반석정밀의 디스펜서, 제이오텍의 항온습습기, 엠에스테크의 라우터, 바른기술의 마이크칩외관검사기, 줌테크의 SMT장비용 노즐, 고산티엠의 클리너, 퓨리텍의 방진복 및 와이퍼, 영진아스텍의 초정밀 에칭 부품 등은 바이어들의 많은 관심으로 해당업체들은 전시회 성과에 큰 만족을 표시하였다.

한국공동관 현장 운영자인 전자산업진흥회 박순길 차장은 “우리나라 전자부품 제조·검사 장비들이 한국 IT산업의 성장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우리 전자산업의 가장 취약점인 전자 부품·소재 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전자진흥회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정부지원을 연계한 우수한 전시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라고 말하였다.

China Sourcing Fair 2005 한국공동관, 상담액 7,300만불, 계약액 2,500만불 달해



한국전자산업진흥회가 주관하여 지난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국내 중소 IT기업 14개사로 한국공동관 구성, 참가한 『China Sourcing Fair 2005(중국 국제 전자 및 부품전)』에서 상담액 7,300만불, 계약액 2,500만불에 달하는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세계적인 미디어컨설팅사인 글로벌소시스 주최로 중국 상하이 중심가에 위치한 Shanghai Mart에서 개최된 이번 전시회에는 총 3만여명의 바이어가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중 50%이상이 한국공동관 방문, 한국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이번 전시회

가 사전등록된 엄선된 바이어만 입장이 가능하여 실질적인 상담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고, 우리나라 IT제품의 우수성이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China Sourcing Fair』에 올해 처음으로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 공동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바이어의 큰 주목을 받은 제품들은 휴대폰용 듀플렉서, 휴대폰용 LCD 모듈, LED 부품, SMD 및 다기능 스위치 등 우리나라 수출 효자품목인 디스플레이, 휴대폰용 부품 및 부품과 PC 및 휴대폰용 보안스크린, DVD 레코더, MP3 플레이어 등 우

리 중소 기업이 강점을 갖고 있는 IT제품 들이다.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중소기업은 아비코전자, CTC(인덕터, 레지스터), 아크로젠텍(LED 부품), 대원정밀(테스트 장비), 데이터게이트코리아(네트워크비디 어서버), 네오디스(LCD 모듈), 파트론(휴대폰용듀플렉서, 칩안테나), 풍산(전자,반도체,통신제품용 통합금시트), 라라전자(레지스터), 사파미디어(DVD레코딩엔진), 삼원전기(다기능스위치), 세화P&C(LCD,노트북용 보안스크린), 선명전자통신(미디어컨버터) 등 14개사이다.

전자부품연구원(KETI) 신축·이전 기념식 참가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윤종용 회장과 이감열 부회장은 전자부품연구원의 성남시 분당에서 열린 신축·이전 기념식에 참가하였다.

KETI 신축 연구원은 지상 5층, 지하 2층, 건평 6,680평 규모로 총 517억원이 투입됐으며, 부품연구동, 디지털 컨버전스 연구동, 행정동 등 3개 동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신축·이전을 계기로 국내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기술이전, 고가장비의 활용제공 및 해외 IR지원 등 중소기업지원 전문 R&D 연구기관으로 제2의 도약이 기대된다.

이희범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전자부품연구원의 국내 전자산업 발전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고, 우수 유공자 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KETI는 지난 1991년 8월 전자분야 R&D 및 중소기



업 지원을 위해 설립됐다. 현재 460여 명의 우수 연구 인력으로 연간 약 700억원 규모의 연구사업비를 투입하며 전자관련 핵심기술개발을 하고 있다.